이집트를 위한 중보기도

(4월22일~28일)





【 지리 】

· 면적 면적 997,739㎢. 대부분이 사막이다. 나일 강변 둑과 삼각주, 서부 사막 오아시스 등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은 국토의 3%다.

·인구 비옥한 지역은 인구밀도가 평균 2,000명/㎢에 달한다. 수도 카이로 11,001,378명.
기타주요도시 알렉산드리아 4,400,000명. 도시화 42.8%. 15세미만인구 32%. 평균수명 69.9세.

【 종족 】

· 아랍인 92.1%. 이집트인으로 아랍어를 사용하지만 성경 시대에 고대 콥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의 후손이다. 이집트계 아랍인 84.3%, 수단인 5.4%, 베두인족 1.2%. 베르베르족 2.0%. 거의 대부분 아랍어를 사용한다.
· 집시(돔) 1.4%. 현재는 거의 아랍어를 사용한다. 할레비족 1.2%, 가가르족 0.3%.
누비아족 1.1%. 아랍어 사용자 1.6%, 누비아어 사용자 0.3%, 케누시 동골라족 0.2%.
기타 0.8%. 서구인 0.6%, 기타.난민 2.4%. 수단 흑인 200만 명 이상. 에티오피아인, 팔레스타인인, 에리트레아인, 소말리아인 등.

【 경제 】

·이집트 경제는 전통적으로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, 인구의 3분의 1만 고용되어 있다. 도시가 팽창하면서 이미 한계에 이른 경작지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. 지난 몇 년간 급속한 민영화로 여러 분야에서 경제가 성장하긴 했지만 인구 대부분은 가난하게 살고 있다. 많은 사람이 부패가 흔하고 공공 부문이 비대해진 것과, 부유층이 부유해지면 서민도 부유해질 거라는 이론이 실패했다고 비난한다. 그 결과 국가가 운영하는 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. 주 수입원은 천연가스, 석유, 섬유, 관광, 수에즈 운하 통행료, 국외 거주 이집트인이 송금해 주는 돈이다.

【 정치 】

현실적이고 매우 실용적인 통치 경향을 띠는 무바라크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비교적 안정되었다. 정부가 강하게 억압하는 가운데서도 지난 20년 동안 무슬림 집단이 엄청나게 강해졌다. 2006년 무슬림 형제단이 의회의 20%에 당선되어 새로운 성장의 기로에 있던 민주주의의 기반이 약해졌다. 종교적 정당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들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, 정부는 무슬림 형제단의 의석수를 제한하고 많은 사람을 투옥했다. 불확실한 앞날 때문에 이집트인은 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진보할지에 회의적이다.

【 기 도 제 목 】

1. 정교회에서 발생한 개신교 교회가 오랫동안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1973년 영적갱신 운동이 일어나고 담대한 지도자들이 새롭게 세워지면고 더욱더 성장 할 수 있도록,
2. 많은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을 돕기 위해 의료 사역과 사회봉사 사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,
3. 지난 20년 동안 기독교인을 더 집중적으로 박해하고 있다. 기독교인과 교회를 희롱하고 차별하며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기독교인에게 장려금을 주는 등 기독교인의 사기를 꺾고 있다. 이집트 북부에 있는 기독교인은 더욱 심한 압력을 직면하고 있다. 압제자와 잔혹한 경찰들 앞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내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

현재 8명의 ACTS 동문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.

출처: 기도24·365(세계기도정보)